

‘상수도 지도’ 있으면 뭐하나... ‘부주의’에 물 줄줄 샌다

지하철 공사중 상수도관 파열 왜?

광주시가 수 십억원을 들여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 지도를 만들었지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파열은 이어지고 있어 지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수도물 누수량이 3년간 4만여에 달해 광주시가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지산사거리 지하철 공사현장의 누수까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파열은 총 25차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 ▲2021년 8건 ▲2022년 7건 ▲2023년 9건으로 총 누수량은 4만 4401t에 달한다.

특히 이중 4만 4가량은 280일간 역대 최장의 가뭄을 기록했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실됐다는 점에서 ‘물절약 운동’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요

3년 간 광주 지하철 공사 중 파열 25건에 누수량 4만톤 달해
광주시 1994년부터 68억 들여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정확도 미흡한 도면도 문제...구조물 지도제작 전문성 높여야

구한 것과는 다른 행보라는 시적이 나온다.

가장 많은 양의 물이 유실된 것은 지난해 5월 동구 동명동 도시철도 5공구 구간 내 상수도 파열이다. 누수 된 양은 2만 308t이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남구 백운동 공사 현장에서 6017t의 물이 유실됐다.

앞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지만 올해 들어 상수도관 파열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하철 공사가 이어지면서 지하로 깊이 파고들어갈수록 상수도 파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구 금호동과 남구 주월동에서는 각각 1300여t, 1200여t의 물이 유실됐으며 가장 최근까지도 동구 지산사거리 도시철도 5공구 구간에서 상수도가

손고되며 118t이 누수되기도 했다.

문제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1994년부터 68억원을 들여 상수도 GIS(지리정보시스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상수도 GIS는 상수도 지리공간정보를 디지털화해 수치지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조사 용역, GIS 입력 자료 중 오류 자료 자체 정비 등을 해왔다. 작년 12월 말 기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 총 4020km를 구축했다.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지도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GIS를 활용해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공사현장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사에 앞서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관망도(GIS)를 통해 관리 매설된 부분을 파악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열의 문제가 발생하는건 공사 중 현장 작업자들이 부주의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도 정확도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GIS 도면이 실제와 도면이 정확히 맞지 않아 착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1994년도부터 상수도 전산 도면화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된 것들은 현장에서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또 3m 아래 묻혀있는 상수도는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GIS 정확도 이외에 워터해머(배관 밸브를 급속히 폐쇄할 경우 충돌파가 생기는 것), 상수관망 노후화 등 다양한 원인을 광주시 상수도

누수 및 파열의 원인으로 꼽고 주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공사시 설계와 시공, 감리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또 워터해머는 전문성을 갖춘 자가 밸브를 천천히 여닫는 등 주의를 기울여 배관 관리에 힘써야 한다”면서 “상수도 관망은 녹이 슬기 전에 5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직접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땅 속에는 가스관, 전기관, 상·하수도가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이에 대한 ‘맵’을 만들기 위한 인적·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상수도 관련 모든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수도과 전반적인 지하구조물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심화된 지하구조물에 대한 맵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광주권 유통조직 검거

경찰이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한 일당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상 밀수 등)로 주범 30대 A씨와 20대 공범 3명을 구속했다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베트남을 13회를 오가며 3억 7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에서 마약을 구매하면 손쉽게 싱가포르에 구매가 가능해 국내로 들여오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공범 3명을 꼬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량씩 포장한 마약류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과정에서 마약류 소지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광주지역에 마약을 유통해 왔고, 일부는 클럽등 유흥업소 종사자를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을 팔고 남은 마약류 일부와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선생님 고맙습니다

광주시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에게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영산강환경청 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

광주지법, ‘구례군 국고보조금 전용’ 제보 A씨 승소 판결

구례군이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운용한 사실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고발한 고발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구례군은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고 146억 19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년이 지난 2021년 7월 1일 A씨는 구례군이 이 국고보조금을 전용하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하고 같은달 30일 광주지법 행정지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A씨의 제보로 언론에 나온 기사

를 보고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고 같은해 11월 국고보조금 유용을 확인해 구례군으로부터 76억 66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난해 5월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언론보도를 참고해 조치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광주지법 순정지청에 관련 공무원 등을 고발했고 그 전에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없으므로 A씨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요양병원서 환자끼리 싸우다 사망

유족 “병원 초기 대처 은폐” 주장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미흡한 초기 대처를 은폐하려 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에게 맞아 쓰러진 A(85)씨가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40분경 병원 복도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8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고 쓰러져 머리 등을 다쳤다.

이들은 병실 창문을 여는 것을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에 구두를 하고 변을 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19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유족은 “병원 측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A씨가 사망에 이르렀고,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확보한 해당 요양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40분경 ‘A씨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A씨의 유족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0분이 돼서야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A씨의 아들은 “담담 의사가 전화해 ‘A씨가 다른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졌으나, 현재는 안정된 상태’다”고 말했다며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병원측이 사설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 40분이 넘게 걸린다고 해, 아버지를 내 자동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다”며 “사실이 안되면 119 구급차라도 불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야 CCTV를 통해 아버지가 당시 5분간 기절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시 119 구급차를 부를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것 같다”며 “환자 외관이 양호해 119를 부를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기록지를 실시간으로 작성하지 않다보니 시간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족에게 CT와 MRI검사를 받으라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의 부검결과를 보고,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병원 측의 과실여부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천희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